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학습
민족 복음화
세계 진로
아름다운 사람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예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 3:12)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형수

| 다음주일설교 |

그리스도의
탄생

김성관 목사

“...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 유에 눕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눅 2:1-7)

두 가지 관점

크리스마스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단연코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첫 부분을 장식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 그것은 놀라운 새 인류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하여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두 가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고, 동시에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조화롭게 설명하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처음 두 구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1:1,2). 여기에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구별된 분이셨고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었던 진리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자식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인간의 관점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막역한 친구로 동료였던 ‘시바’를 받는 의환(공 4:14) 누가입니다. 누가가 세심하게 조사해보고 기록한 그리스도의 탄생 기록은 성경의 인도를 따라 기록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해 줍니다. “이 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한 호적이라”(눅 2:1,2).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레뇨는 주전 4년부터 주후 1년까지, 주후 6년부터 10년까지 수리아의 총독으로 연임했던 인물임이 확실합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위의 두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았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공포하고 구레뇨가 실시한 인구 조사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이미 마리아는 임신 9개월 중이었으나 정부 정책은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서”(6절) 할 수 없이 나귀를 타고 136 킬로미터를 여행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탄생된 몸으로 그렇게 여행한다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은 인구 조사를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로 몹시 붐비고 있었고, 여관은 벌써 객실이 다 차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마구간을 보여 주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거기에서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의 진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불편한 나귀의 등에서 내려 부르드러운 건초 더미 위에 누울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진통이 오는 감각이 떨어지면서 마리아의 고통은 심해졌고, 요셉은

잘 참아보라고 마리아를 격려했습니다. 진통이 극도에 다다르고 배에 힘을 주는 일이 더 힘들어졌을 때, 아기 예수의 머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어깨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메시야가 태어났습니다. 간간한 갓난아기의 숨소리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셉은 아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었고 깨끗한 천에 싸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한 세상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새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마침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이로움 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만왕의 왕이 탄생하신 것이니 마땅히 천군 천사가 마구간에 가득 내려와 그의 탄생을 격려하며 찬송을 불러야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탄생하신 것이니 마땅히 대제사장들과 왕들과 고관대작들이 그곳에 찾아와 그의 탄생을 축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구간 안에서는 가축들만 요셉과 마리아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날 밤, 하늘로부터 임한 기쁜 소식!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일했고, 하늘에는 소가 찬란한 별이 떠올라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들레헴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메시야는 세상이 태만할 가운데 깊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며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고 경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셔 들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겉으로 무엇인지를 완전히 보여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 오라”라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살신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성서”(빌 2:6-9).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해 놓은 성경의 이 모든 기록은 그리스도를 가시지 영인 진리부터 어떤 신성을 가지셨고, 또 이 땅에서는 어떤 인성을 가지고 계셨는지 밝히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니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신이니라” 이것은 복음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겉면에 대한 확실한 설명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온 전 언약함을 제물로 하지 아니 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한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용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5,16).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고 신령한 방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성경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한 기록과 인간의 관점(역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한 기록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2림 시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때 깨어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 때문에 흥분하고 선물 교환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해서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메시야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Sermon for next week

BIRTH OF CHRIST

"...⁽³⁾And all were proceeding to register for the census, everyone to his own city. ⁽⁴⁾And Joseph also went up from Galilee, from the city of Nazareth, to Judea, to the city of David, which is called Bethlehem, because he was of the house and family of David, ⁽⁵⁾in order to register, along with Mary, who was engaged to him, and was with child. ⁽⁶⁾And it came about that while they were there, the days were completed for her to give birth. ⁽⁷⁾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LUKE 2:1-7)

As Christmastime nears, people tend to think about Christmas stories. The favorites are usually the birth of Christ, Santa Claus, and the three wise men. The story that holds the most meaning is the birth of Christ. This story is actually the first chapter in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It's the beginning of God's good news. It's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 It's the start of a wonderful new humanity. The amazing thing about this story is that it has two viewpoints. The Bible offers both a divine and human account of the birth of Christ. It gives us matching descriptions so that we can more fully understand and appreciate God's grace.

Today's Bible verses portray the human side of Christ's birth, but before we look at them, let's briefly overview the divine side. The Book of John, perhaps best, illustrates the divine side of Christ's birth. Its opening verses tell u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vv. 1&2). The "Word" is Christ. In these verses, Christ is said to have been already in existence with God before time began. He is said to be with God, in communion with and yet distinct from Him, and to be God, identical in essence with Him. John further states,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v. 14). The Word becoming flesh is not limited to the New Testament, but foretold in the Old Testament, "But as for you, Bethlehem Ephrathah, too little to be among the clans of Judah, from you One will go forth for Me to be ruler in Israel. His goings forth are from long ago, from the days of eternity"(Mi. 5:2). God's people were aware that the Messiah, Jesus Christ, would come from Bethlehem.

The human side of Christ's birth was written by Luke, the "beloved physician"(Col. 4:14), close friend and companion of Paul, who was probably the only Gentile author of any part of the New Testament. His carefully researched and well-documented narrative of the birth of Christ, written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instructs us in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that event: "Now in those days a decree went out from Caesar Augustus, that a census be taken of all the inhabited earth. This was the first census taken while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vv. 1&2). Caesar Augustus was the Roman ruler who reigned from 27 B.C. to A.D. 14, and Quirinius was apparently the governor of Syria twice: from 4 B.C. to A.D. 1, when this census was taken, and again in A.D. 6-10. These two men were not fictional characters, but factual leaders that actually lived and died on this earth. They were real people who existed in human history.

The census decree Caesar Augustus issued, and Quirinius enforced, required Joseph and Mary to travel from the city of Nazareth in Galilee to the city of Bethlehem in Judea. Even though Mary was nine months pregnant, the government's policy did not offer any exclusion. Unlike our 21st century legal system, which provides rights for expectant women, the political structure in ancient times was not so broadminded. Mary, whose "days were completed for her to give birth"(v. 6), had to ride 85 miles on a donkey, while her husband walked beside her. The level of her discomfort was undoubtedly high. Riding a donkey on a rocky and bumpy road for long periods, especially while heavy with child, was agonizingly painful.

Thankfully, they safely arrived in the little town of Bethlehem. The place was crowded due to the census decree, and the inn where they thought they could find a room was completely full. The innkeeper had no space inside for them to rest and recover from their arduous journey. This poor couple was in terrible need, and the innkeeper showed them his barn. Without hesitation, they accepted. The pains of childbirth had begun. Joseph had to prepare quickly a place for his wife to give birth. As Mary lay on the hay, relying on an oil lamp for light, watching the shadows of the animals move around, her pain increased.

She didn't complain. She was happy to be off the donkey, laying down on soft hay. This poor little Jewish girl had to breathe and push for long hours through the contractions of labor. As her cries and moans intensified, Joseph encouraged her to endure. He prayed for her, and held her hand in love. He knew the dangers of childbirth, remembering Rachel's death in delivering Benjamin.

When the pain became most urgent, and the pushing more difficult, the baby Jesus' head appeared, and then His shoulders. The Son of God was about to be delivered through the Virgin Mary. Her body covered in sweat, her strength diminished, the Virgin Mary gave one last push, and as the fluids and blood flowed out from between her legs, finally the Messiah had arrived. Joseph had a wooden bucket of water ready to cleanse the infant. He picked Him up, and quickly washed out his eyes, ears, and nose. He cleared His mouth, and rubbed His body. Then the breath and cries of a healthy baby came forth. Gently holding the tiny, squirming newborn, he cut and tied the umbilical cord. He washed Him some more and wrapped Him in cloths, placing Him on Mary's chest while He disposed of the afterbirth.

The most High came to the most low through the workings of the Holy Spirit. Mary soothingly placed her baby beside her in a manger, watching Him as she laid down to rest her body. The baby began to wiggle His head, trying to find His mother's breast for nourishment. Joseph and Mary looked on in amazement, knowing that the light of the world had finally come to this earth. The King of Kings had traveled a long distance. He had come into the life of humanity, and His tired, small human body forced Him to sleep. His room should have been filled with the singing of angels, but only the flies made noise. In that room, the high priests, kings, and noble officials should have been present, but only the barn animals kept Mary and Joseph company. That night, the good news from heaven came to nearby shepherds, and the brilliant star from heaven led the Gentile wise men, but the little town of Bethlehem was quiet. The Messiah came into a silent night, as the world deeply slept in neglect.

During this Christmas season, where is your heart for Jesus Christ? Do you have room for Him in your house? Do you welcome Him into your life with praise and worship? The epitome of humility is the birth of Christ,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Therefore also God highly exalted Him, and bestowed on Him the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Phil. 2:6-9). My friend, the divine and human accounts of Christ's birth reveal His heavenly deity and earthly humanity. 2 Corinthians 8:9 says,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This is not only a concise statement of the gospel, but a clear understanding of His loving humbleness.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has been tempted in all things as we are, yet without sin. Therefore let us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Heb. 4:15&16). Amen.

Today is the first Sunday of December. You need to physically open your eyes and spiritually see Christ. His birth was real. The divine (biblical) and human (historical) accounts agree with each other. The majority of God's people slept during His first coming. Will you be awake for His second coming? Please, focus your attention on Him. This Christmas, get excited over Jesus, not Santa Claus or the giving of gifts. Let your heart have Jesus in the most important position. Concentrate on Messiah! 🕊

◆ 지난해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회	팀	팀 장
11월 18일(화)~11월 26일(수)	D	8교구 10지역	최차용
11월 18일(화)~11월 28일(금)	G	2교구 9지역	김복섭
11월 18일(화)~11월 28일(금)	G	15교구 2지역	박미련
11월 19일(수)~11월 27일(목)	D	12교구 8지역	조문수
11월 20일(목)~11월 29일(토)	D	1교구 9지역	김용조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회	팀	팀 장
11월 25일(화)~12월 5일(금)	L	11교구 6지역	박성명

*선교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양은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⑦

사도들의 발육

전도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급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대답은 분명하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사도행전을 읽다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 사역을 추천해 나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구절을 유심히 읽어보자. '네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가다 욕에 거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행 5:17~21).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옥에 갇힌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시키셨다는 말씀이다.

여기만 보면 '그런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뒤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예시로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다시 불 잡혀 오게 되고 이번에는 석방되기 때문이 아니라(40절),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도모하셨을 리가 없다. 그러나 사도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석방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들이 석방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할 수 도 있었다. 그레바야 하루 차이가 아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방종에 그들을 탈옥시키셨다. 그리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위의 구절을 읽으면서 차음에는 비시지 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급하게 역사하지 않으실 리가 없지?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그러나 한참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다니 웃음은 사라지고 심한 부고 마음이 밀려들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내 자신에게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참여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을 부러들고 여러 가지 핑계와 구실을 갖다대면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나중으로 미룰 때가 많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있어 하리라. 새벽에 성전에 모여 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탈옥시킨 하나님의 급한 그대음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욕에 갇혀 있던 사도들처럼 선교에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언어 실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가정에 매여 있고,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낼 수도 없으며, 복음을 전할 단념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선교 사역에 참여할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형 그러한 장애물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욕에 갇혀 있던 사도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어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우리를 구하고 있는 이 욕문을 주의 능력으로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어 주소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이복희 목사(전집국 지도))

중국인 근로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중국에 대해 알아 보자. 중국은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960만 평방키로미터의 넓은 국토를 확보하고 있고, 인구도 13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5분 1을 차지한다. 자국의 장점을 강조한 교육으로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동일하겠지만 중국은 그것이 더 강하다. 흔히 말하는 중화상상이 잠재 의식 속에 깔려 있고, 그들의 삶에서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중화상상은 자신들의 율리다 뿌은 모두 야만인으로 간주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다. 중국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다. 유교학자들은 "우리는 공자와 함께 지옥에는 가도 너희들의 예수와 함께 천당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기독교를 서양종교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공식적인 교육은 진화론과 유물론이었다. 그리고 큰 나라를 통일된 국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국가주의를 주입시키려고 했다. 또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평등분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산력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인쇄가 난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소평이 중국만의 독특한 사회주의건설이라는 방적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현 시대의 중국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경제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금전만능주의 사상이 중국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긍지, 국가주의에서 나오는 잘못된 애국심('공산당에 대한 충성이 곧 애국이다' 라는 사상), 유교 사상으로 인한 잘못된 기복주의, 불교의 운명론적 사상도 팽배하다.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로 발생한 인본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도 하여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려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 즉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중국인 성도 한 분을 소개한다. '차이현홍' 성도는 2001년에 중국 사천성에서 한국으로 입국했고 한달 후부터 충현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중국에 있을 때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비록 몸이 약하고 이국 생활에 힘들 때도 있지만 장차 들어갈 진정한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면 감시뿐만이 마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한국으로 함께 온 동생 '차이현홍'과 '차이현리'를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했고, 교회에 가장 잘 출석하는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변화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맺은 천국 열매임을 확신한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언어문제, 취업문제, 송금문제, 임금체불문제, 체류자격수속문제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한국인들이나 한국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대다수가 한국에 있는 동안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달고 살다 보니 자신에 대한 정체감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받게 되는 정적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도 마음을 잘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들과 자주 전화 통화하고 토요일과 주일지역에 배 후에는 심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특별한 어려움에 봉착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시간을 내려고 한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들의 돌잔이 굳은 마음을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욕도로 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들의 현실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도움은 십자가 복음 전달의 접촉점일 뿐이다. 현실적인 도움이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역의 목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상의 문화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형성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들이 천국 입문으로 성장하여 중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 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오시문(외신부 중국팀 간사)

이슬람, 무슬림 그리고 그들의 금식, 라마단 2부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이슬람 식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슬람 식의 선지자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또한 성경보다 코란(꾸란, 이슬람의 경전으로 모하메드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제자들이 적은 글)의 권위를 그 우위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슬람 식의 하나님, 이슬람 식의 예수님이란 무엇일까? 또한 이들의 경전인 코란은 어떤 것일까?

이슬람에서의 하나님은 '알라'로 통한다. 간혹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을 동일한 분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이슬람에서의 알라는 피조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참으로 냉담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의 개념 안에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은 그들의 '알라'라는 개념 안에서 제한되어 이해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광대하시며 지극히 개인적이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무슬림들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음의 권세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선지자'로만 생각한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코란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결국 예수님의 그리스도되심을 부정하는 이슬람은 구원의 근거를 믿음이나 행위(이슬람 분파마다 다름)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말씀을 통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엡 2:8).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은 성경이 쓰여진 500년 뒤에 모하메드의 제자들에게 의해 쓰여졌다. 무슬림들은 코란이 성경보다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정확한, 다시 말해 '완성된' 경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지자들과 예수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들은 알라 신으로부터 왔으며 코란은 성경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냈다". 여기서 우리는 코란이 성경을 '확증'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지 부족한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란에서는 "하나님은 그대에게 이전에 계시된 것을 진리로 확증하면서 계시를 내려셨도다. 또한 모세에게 율법을, 예수에게 복음을 내려 인류의 지침으로 하셨으니"(수라 2:88)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코란 다른 곳곳에서 이와 상치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이는 '모순'이 아닌가?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치의 오차가 있을 수 없다. 진리는 변할 수 없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무슬림은 '회개'(특히 우상숭배에 대해)를 한 후,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모하메드는 그의 사자라는 것을 '신언' 한다. 개인의 구원은 부활의 날에 자신의 죄의 무게가 선행의 무게와 얼마만큼 비교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아무런 확신 없이 살다가 죽는다. 이 때문에 이들은 '라마단(이슬람 월례)' 기간 동안 전국에 가는 길을 얻기 위해 낮시간 동안 금식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부분적으로 자백하고, 죄악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며, 가난한 이들을 돌본다. 이는 이슬람이 종교적인 행위임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인연 인간에게서 과연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이들의 라마단 금식 기도 기간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무슬림들이 이 기간을 거룩히 지킬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무슬림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길 잃은 영혼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오늘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느껴지기를 소원한다.

(선교위원회 제공)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에프 브루크(F. Brook)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기쁨도 아니고
평강도 아니며 심지어는 축복도 아니라.
내 목표는 오직 하나
나의 하나님 오직 그 분 안 분별이라.
나를 그리로 이끄시는 분도 그분이니
내가 아니라 그 분이실제.
사랑하는 주여,
어떤 어려움 있어도
어떤 길이라도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리로 인도하실 것 나 확신하니
가는 길이 때때로 어둡되도 상관없으며
깊바람 대가 치러야 해도 상관없다.
내 영혼은 주께 붙들려
주를 가까이 따르리이다.

그리로 나아가는 최상의 길을 주께서 아시며
그 길의 협착함도 주께서 아시네.
나 주의 인도를 겸손히 따르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리니
내 하나님이니여,
주는 땅에서 날마다 내 영생이시며
하늘에서 내 위대한 상급이시나이다.

♡ 교구 안에서 만난 예수님 ♡

내가 십자가를 갈 때...

"기상, 일어나세요! 공주님들!" 주일아침, 남편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크게 울린다. 벌써 1부 예배를 드리고 온 모양이다. 나 혼자 교회에 다니며 불교인 시대와 남편의 짐바에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낸 지난 10년의 세월이 스쳐간다.

이제 남편은 6개월의 새가족부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된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복음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던 남편이 이제는 주일 아침이면 제일 먼저 주님께 달려가고 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신 주님의 사랑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하지만 초신자인 남편은 주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사이에서 흔들릴 때도 많이 있다. 그 때마다 나 자신도 그런 남편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 금요침례 중 찬양을 통해서였다.

♫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별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내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감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

이 찬송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거늘... 입술로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구나! 오늘도 나의 기도는 계속된다.

'주님! 저희 가정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자라가도록 도와주세요.'



김 전사(자사, 1교구)

6월 14일, 은밀히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따로 시간을 하루 내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였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시고, 그 빛난 얼굴의 광채를 내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소원이 내 마음에 있었다. 하지만 오직이 다 지나가도록 내게는 별다른 생기가 힘이 없었다. 그러나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믿을 없는 친구들을 위하여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밤이 깊어 갈수록 주님은 더 놀라게 기도 속에 찾아오셨다. 이전에는 이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었다. 수없이 많은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온몸이 땀으로 젖었을 정도로 힘써 기도를 했다. 아, 사랑의 주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셨는데 그저 조금밖에 되지 않는 땀을 흘릴뿐인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그들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든 기도를 마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의 일기 중에서-

♫ 다름 주일 찬송

120장 "오 베들레헬 작은 골"

작사자 필립스 부룩스(Phillips Brooks, 1835-1893)박사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 성공회 신학교를 마치고 1859년 성직 안수를 받았다. 그는 하버드대학 교수로 설교자로 여러번 초빙되었으나 거절하고 교회의 고위 성직도 뿌리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200편 이상의 많은 찬송가를 위조고 있던 그는 설교에 자주 찬송을 인용하였다. 이 가사는 1868년에 쓴 크리스마스 찬송가로 성지를 방문했을 때 받은 깊은 영감을 시로 옮겨 놓은 것이다.

작곡자는 루이스 헨리 레드너(Lewis Henry Redner, 1831-1908)인데 주일학교 부장이며 오르가니스트였다. 그는 부룩스 주교로부터 이 시에 붙인 곡을 부탁받았지만 악상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름다운 찬송을 들어 주었고 그는 즉시 그 멜로디를 곡으로 옮겼다.

1절 : 오 베들레헬 작은 골 내 고토인 집은 마을이여 꿈 꿀 거름도 없이 깊이 잠든 내 위로 별들만 조용히 반짝이누나 깨어라 영원한 빛이 내 어두운 거리에서 빛을 발하시니나 모든 세대의 소망과 두려움도 오늘날 너에게서 이루어졌도다

2절 :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통하여 이 땅에 나셨으니 사람들 잠든 시어 찬사들은 하늘에 모여 놀라운 사람으로 아기 예수 지키네 오 아침 별들이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큰 소리로 선포하라 왕이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전하라

3절 :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조용히 기이한 선물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처럼 하늘의 묵락을 인간에게 주시되 조용히 주시네 최약 가득 찬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나 운운한 심령 가진 이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 엄습해

4절 : 베들레헬에 나신 거룩한 아기여 구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오소서 우리의 죄 물리치시고 맘속에 임하시어 오늘 우리 인애도 임하시어 성탄을 일컫는 천사들이 기쁜 소식 전함을 우리 귀로 들리니 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시여 아멘

'이 찬송가 가사는 영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충헌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시면 묵상하시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찬양위원회)

세 · 가 · 족 · 을 · 형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79	박인화	1 청년부	1391	최정경	10 청년부	1403	최문희	19 대학부	한성은(19)		
1380	정은하	3 청년부	나순예(5)	1392	권순홍	10 청년부	1404	최희영	19 대학부		
1381	정은미	5 청년부	나순예(5)	1393	이서은	10 소망부	1405	최보라	19 대학부	오준봉(8)	
1382	서인숙	6 청년부	남성길(6)	1394	김종집	15 청년부	윤정숙(15)	1406	이지혜	19 청년부	장부루(6)
1383	서혜숙	6 청년부	남성길(6)	1395	김정훈	16 청년부	김남희(6)	1407	이혜송	1 청년부	
1384	김승영	6 청년부	최정경(6)	1396	이미숙	16 청년부	김남희(6)	1408	박진아	19 청년부	구자홍(16)
1385	이혜숙	6 청년부	양옥자(6)	1397	김기영	17 청년부	조규환(19)	1409	이영랑	19 청년부	김민도(19)
1386	양정숙	6 청년부	양옥자(6)	1398	한태영	18 청년부	노영환(19)	1410	전순복	19 청년부	한은혜(6)
1387	강진철	7 청년부	주자권(10)	1399	한현아	15 고등부	구재환(2)	1411	오진만	19 청년부	윤효남(2)
1388	김종집	7 청년부	김희철(1)	1400	백은경	19 대학부		1412	최정아	19 청년부	이수자(1)
1389	정미선	7 청년부	김희철(1)	1401	이은혜	19 대학부		1413	이성훈	19 청년부	이수자(1)
1390	신동훈	8 청년부	이거영(7)	1402	이윤선	19 대학부	김용원(1)				

※ 송헌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작은 천국을 이루는 제자들

계속되는 경기 침체는 가난한 서민들이 대부분인 에바다부 식구들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 중에는 신용불량, 실업 등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보이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매 주일 만나는 에바다부 식구들의 모습은 늘 환하고 즐거운 천국의 모습이다.

한 집사님은 아파트를 땀 흘려 구워 팔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은 싱글벙글이다. 그래서 그곳 아파트 주권이라면 모두 그를 알고 있다. 이 집사님의 환한 모습을 보고 강도들은 받은 한 초등학교생은 학교신문에 가져쳐서 존경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에바다부 학생만 성가대원인 어린 학생이 있다. 그의 해맑고 순수한 모습은 천사와 같다. 그는 매 주 미소지으며 손짓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이 모습을 보며 많은 건청인 선생님들은 눈시울을 붉힌다. 법사에 감사하지 못하며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의정부, 전국에서 버스·기차·전철을 갈타며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노인들도 계신다.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아침 5시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하여야 세 시간에 맞출 수 있다. 그러나 불행 한번 없다.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만나면 그냥 즐거워 서로 손을 맞잡고 어린이이처럼 부둥켜 안는다.

초등학교인 아들과 함께 교회에 오는 한 성도가 있다. 이분은 청각장애인이면서 영양실조로 인해 시력이 나빠서 각막이식수술을 받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통회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산다. 이분은 언제나 기쁨에 겨워 눈물부터 흘린다. 수술을 받은 후에 안경을 취하여 하는데 기뻐서 눈물을 흘리다가 재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 언젠가 폐병을 주위 마른한 돈으로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하신다며 음료수를 사 오신 적이 있었는데 차마 마시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어김없이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꽂았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란 무엇일까? 기쁘고 좋은 때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과 역경 중에 있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감사야말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이다”(삼 3:17-18).



변 청 대 (집사, 에바다부 교사)

☆ 교사양성부 교육을 받으며 ☆

제10강 교사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돌볼 것을 세 번이나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 그 말씀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비함으로 하되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의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 전 5:2-3). 주님은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자비한 마음으로 즐거이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한발 피조물인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배워서 아이들을 인격으로 전신되게 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사랑과 진심함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 땅에서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펴말하는 것에 앞장 섰었지만 오히려 공물을 얻었고, 자신을 중성되이 여겨 자신을 맡기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안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직 죄의식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1:6).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꾸미진 모습을 보여 주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 놓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무리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골가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사로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찬양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구하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 2:16).

(한대원 기자)

‘한 걸음 더’

손 송 이 (소년부)



예수님께서는 많은행위를 일으키시고 물고기를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가 십자가를 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까?”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내려오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 번이나 반복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온갖 꾀를 내어 교회 못가게 하고 집안인 어려운 것도 고난이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며 오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있다. 예를 들어 청어를 잡는 어부가 청어를 잡아 돌아오면 청어가 다 죽어서 죽어 있다. 하지만 청어를 넣어 둔 어항에 상어를 함께 넣어 두면 청어가 언제나 건강하고 있다. 그래서 싱싱한 채로 돌아올 수 있다. 상어가 고난이고 청어가 우리들인 셈이다. 즉, 고난은 유익하다.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기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직 기도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예수님께서도 힘든 고난을 극복하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 받아 고난이 닥칠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

믿음의 학교에서

“달라다금”(막 5장)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말 아레 드리라”(22절). 회당은 각 지역마다 예배되는 처소를 말합니다. 회당장은 그곳의 우두머리이며 장로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야이로는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딸 앞에 엎드려 수백에 없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다.

그리고 열두 해를 혈투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25절). “내가 그의 옷에 한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혈투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28-29절). 그녀의 혈투증이 나았으면 돈에 해결 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받은 여인과 의 인격적 만남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다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당시 혈투병은 문둥병과 같이 저주받은 병입니다. “...떨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34절). 이 말씀에 한신 것은 그녀가 겪었던 소, 고통 가운데 있던 그녀의 삶에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요. 이 장면을 보고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예약했는데...”라고 생각하면 혈투병 여인에 대한 미움과 예수님께 대한 섭섭함, 분노, 실망, 속상함 등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어. 그러나 이상 예수를 깨달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죽음으로 다 끝났으니, 가서 장례나 치르자는 말이지요. 예수님께 더 이상 불일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야이로는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체해서도 내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왜 안들어 주시나요? 언제 끝났습니까?’라는 기도를 한 적은 없나요? 나에겐 끝이없어, 주님께선 그제야 시작하십니다. 과연 그럴까? 틈틈이 주지않은 자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의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을 갖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나를 향해 지니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을 계속하여 지니라는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라다금 하시니...소리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라”(40-42절). 야이로의 딸이 소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셔서, 낙담과 좌절을 맛보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어떤 뜻과 계획이 있지요. 너무 급하다는 것을 아는데 내가 기다리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단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의 자리에서 슬퍼하게 놓아 두십니다. 우리가 처한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과 승리의 영광이듯, 사단이 주는 절망이 날 쓰러지게 할 뿐이지, 우리의 끝은 세상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권왕기 기자)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 1, 2차 월례회
일시: 12월 3일(수) 9:30 예배 후
장소: 강림리울
2. 1교구 태산지 초청 모임
일시: 12월 7일(주일) 14:00-15:30
장소: 제2교육관 20호
3. 12교구 태산지 초청 집회
일시: 11월 30일(주일) 20:00
장소: 복직관 지하 2층

별세

1. 황이영 성도 최규태 집사의 장모, 문호순 집사의 모친, 1교구/22일 별세, 24일 장례
2. 한기만 성도 17교구 장동우/23일 별세, 25일 장례
3. 김호성 성도 신선재 집사의 모친, 이인숙 집사의 시모, 8교구 장변우성구/24일 별세, 26일 장례

결혼

1. 이성훈 군(구자회 타교목사의 아들)과 강크리슨원 영장현상 성도, 김정자 집사의 딸, 15교구/12월 6일(토) 14:00 장남미리니 배영훈 ☎ 5477-5900
2. 김호성 군(김기영 성도, 박태욱 성도의 아들, 1교구)과 이미정 영이집사 집사, 이현 분 집사의 딸/12월 6일(토) 15:00 대관부자증전 3층 한아름울 ☎ 5771-7114

◆ 음력식 카메라 봉사자 모임

일 시: 주일 및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
장 소: 식당 및 음영실 (☎ 562-4872)
자 격: 책임자를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할 분
(예배시간 전부터 준비하여 함)
초보자 가능(차제교육 후)

◆ 군 복무 중인 형제들에게 선편선물을...

군 전도회에서는 성탄의 기쁨을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 중 군에 복무 중인 형제들의 주소를 군 전도회에 비치된 양식지에 기입하여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모집

1. 모집부문 인생설·경비직
기도원 식당
2. 자 격 세례교인
3.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타교인)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릉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충현교회

충현기도의향

- ① 김성권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과하시므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전리를 전파하는 절절한 통로로 사용되어 주소서.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와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교구별 태산지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주소서.

12월 주일 및 수요일예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에배 (장문)					찬양예배		수요일예배	
		I	II	III	IV	V	I	II	I	II
12	7	최무길	김의철	정경일	남선우	김구형	조석구	이정숙	이 훈	
	14	박덕양	김영길	이철호	박찬섭	김단용	신진길	서화자		
	21	이계인	김영달	김은호	배준식	권병목	전홍용	곽기영		
	28	박홍규	이종석	최대원	노영한	조종환	엄필성	김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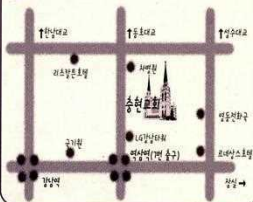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1(월)	2(화)	3(수)	4(목)	5(금)	6(토)	7(주일)
설교자/지도자	교광환/이정우	위건광/최대환	김익환/변해수	정진호/한만교	김정수/최만우	장 훈/이수경
						임현덕/정연희

예배 담당안내 (12/3-12/7)

날짜	예배	예배전 찬양	사회	기도	설교
12/3	수요일 I	특별찬양 (마리온 서준성/교구/바이올린 김유정)	유병희	정육남	무엇이 보이느냐(막 8:22-26) 교광환 목사
12/3	수요일 II		정중신	김숙자	무엇이 보이느냐(막 8:22-26) 교광환 목사
12/5	금요일 집회		위건광	안정덕	안정덕 목사
12/7	주일 I		안지현	최무길	그리스도의 탄생(눅 21:7) 최정준 목사
12/7	주일 II	그 어둠 주 예수와 그리스도 김순원(합창부) 찬양대 송모이스트	김익환	김의철	그리스도의 탄생(눅 21:7) 방준영 목사
12/7	주일 III	내 주님 임오신 그 웃음의 팔라라트 최호일(합창부) 오케스트라	이종대	정경일	그리스도의 탄생(눅 21:7) 김성권 목사
12/7	주일 IV	관 오소서 임아누벨의 바이올린 장연희(합창부) 오케스트라	나광영	남선우	그리스도의 탄생(눅 21:7) 여국근 목사
12/7	주일 V	내 주는 살아 계시고 그리스도 구자은(별명 찬양대 송모이스트)	안정덕	김구형	그리스도의 탄생(눅 21:7) 여국근 목사
12/7	주일안양		교광환	조석구	영미 줄기화원지이다(시 21:12) 이종대 목사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10:5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후 1:00(대관/동시통역 예배)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일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기도회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최종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송모이스트
금요일찬양	오후 10:30	금요일회후 본당 앞 송모이스트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김은호	노영한	오진국	이병학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최대원	엄필성	김도용	이 훈	남선우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정은석	김영진	문종규	조진재	김종구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최무길	김진태	이창호	차진석	김현우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이종석	이병욱	안종욱	임두현	최기훈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이강재	전홍용	전홍원	이정우	김단용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황영일	한승규	김영수	김한기	원운정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이형수	안동원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우	박종우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권병목	조종환	배준식	김영달	이철호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박찬섭	최지우	노영한	박철권	정경일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신상수	강철형	고계숙	김영은	이달우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강철형	김순곤	함철규	윤석진	정선현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안지현	김구형	이훈	정연희	김성권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이종철	김영호	여국근	김교성	안정덕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종대	교광환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위건광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현덕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이희식	최종훈	하종철	안지현	이태복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장정훈	양재용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이재영	이재영			
기독교	기독교			
■ 남전도사 이영희 (기교)				
■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주	윤인숙	한영준	김익선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홍순애	이우주	김진도	안태선	김정연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조옥자	강덕희	김정신	장혜주	최복실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 찬양감독 김구형 ■ 전집사 서준성				
■ 전집사장 김순원				
■ 단기선교 장기원 (신약)				
■ 협력선교사 최효섭 (기교)				